

S#1. 목공소 / 저녁 / 어두움

목공에만 집중하는 수현을 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는 예린.
목공소는 톱밥과 목공 도구들로 인해 크게 어질러져 있다.
목공인형을 만들고 있는 수현의 옆에 앉아있던 예린은 기다림에 지쳐 핸드폰을 확인한다.
예린의 핸드폰에 '❤️100❤�'이라고 적혀 있다.

S#2. 목공소 건물 복도 계단 앞 / 저녁 / 어두움

수현과 예린은 말다툼을 벌인다.
예린은 본인을 만날 때에도 목공에만 집중하는 수현에 대한 불만을 쏟아낸다.
수현은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예린에게 서운함을 느끼며 되려 화를 낸다.

예린 : 너무 한 거 아냐? 나보다 저 나무 쪼가리들이 더 소중한?
수현 : 내 취미가 목공인 거 알잖아. 그것도 이해 못해줘?

예린과 수현의 갈등은 더욱 심해져 갔고, 화가 난 예린은 수현을 계단 아래로 밀친다.
예린은 놀란 표정으로 입을 막고, 수현을 바라본다.
굴러 떨어진 수현은 무릎을 붙잡고 크게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 한다.
그 옆에는 수현의 가방에서 튀어나온 다리가 한 쪽이 떨어진 목각인형이 있다.

S#3 수현의 집 / 낮 / 밝음

걸을 수 없게 된 수현은 침대에 앉아 다리를 붙잡고 슬픈 표정을 하고 있다.
예린의 부축을 받아 걸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계속 넘어지며 실패한다.
노력에도 걸을 수 없는 수현은 절망에 빠져 머리를 잡고 절규한다.
예린은 그 모습을 뒤에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켜본다.

S#4 수현의 집 / 낮 / 밝음

침대에 누워 멍하니 있던 수현에게 예린은 간이 책상과 본인이 깎아온 과일을 건네 준다.
예린은 말없이 뒤를 돌고, 수현은 그런 예린의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표현한다.
예린은 애써 웃으며 싱크대로 가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한다.
설거지를 하는 예린의 표정은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다.

예린은 아픈 수현을 대신해 청소, 빨래, 설거지 등 각종 집안일을 하며 수현을 챙긴다.
그 과정에서 예린이 가지고 있던 죄책감이 덜어져 예린의 표정이 편안해 진다.
걸지 못하는 상황 속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예린을 수현은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예린에게 모든 것을 의지한다.

S#5 수현의 집 / 저녁 / 어두움

시간이 지나 저녁이 되었고, 예린은 수현의 집에서 나갈 준비를 하고, 수현은 예린을 붙잡으며 놓치지 않는다.

수현 : 왜 가? 그냥 나랑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예린 : 내일 와서 더 도와 줄게. 오늘은 너무 늦었어.

수현 : 안돼. 가지 말고 그냥 나랑 같이 있어줘 (예린의 손을 꼭 붙잡는다.)

예린 : (손을 뿌리치며) 내일 다시 올 게.

수현은 예린을 광적인 눈으로 바라보았고, 예린은 그런 수현에게 불쾌감을 느끼며 집을 나선다.

수현은 예린이 나간 문을 쳐다보며 소름 끼치는 시선을 보낸다.

S#6 수현의 집 / 저녁 / 어두움

수현의 목공 용품을 정리하고 있는 예린.

그런 예린의 시선 끝에 수현과 찍었던 인생네컷 사진이 보인다.

S#7 인생네컷 / 낮 / 밝음

(과거)

손을 잡고 인생네컷으로 들어가는 예린과 수현.

둘은 인생네컷에 있는 다양한 소품들을 써보며 서로 어울리는 소품을 골라준다.

서로 골라준 소품을 착용하고 둘은 사진을 찍는다.

사진이 나오고 예린은 그 사진을 보며 웃는다.

S#8 수현의 집 / 저녁 / 어두움

인생네컷을 집어든 어두운 표정의 예린.

예린은 사진을 내려놓고 다시 수현의 집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예린의 뒤, 침대에 누워 있는 수현이 침대를 세게 치며 예린을 부른다.

예린은 한 숨을 푹 쉬고 입술을 짹 깨문다., 손에 들고 있던 조각칼을 짹 움켜쥐었다가 내려 놓고 수현에게 간다.

수현은 본인에게 온 예린의 허리 춤을 짹 껴안은 뒤 예린의 손을 자신의 입 쪽으로 가져간다.

수현은 씨익 웃으며 행복하다는 듯, 하지만 광기에 어린 표정을 짓는다.

예린은 큰 불쾌감을 느껴 수현을 밀어내려 하지만, 남아있는 죄책감으로 인해 수현을 받아들인다.

S#9 수현의 집 / 저녁 / 어두움

집에 혼자 남아 예린을 기다리는 수현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가지만, 예린은 오지 않았고, 초조해진 수현은 시계만 계속 확인한다.

예린이 없다는 불안함이 수현을 휩싸였고, 수현은 예린에게 계속해서 문자와 전화를 한다.

S#10 수현의 집 앞 골목 / 저녁 / 어두움

수현의 집으로 가고 있던 예린.

핸드폰이 계속 울리고, 예린은 핸드폰을 확인한다.

예린의 핸드폰에는 수현의 문자와 부재중 전화로 가득하다.

수현의 문자 '6시까지 오기로 했잖아. 왜 안 와? 이제 내가 싫어'

예린은 지친 표정으로 한 숨을 쉬며 수현의 집으로 들어간다.

S#11 수현의 집 / 저녁 / 어두움

수현의 집에 도착한 예린.

수현은 예린을 보자마자 다리 없는 목각인형을 예린을 향해 던진다. 그리고는 시계를 가리키며 예린에게 화를 낸다.

시계는 6시 2분을 가리키고 있다.

예린은 머리를 움켜쥐며 수현에게 자신이 지쳤음을 토로한다.

예린 : 나 힘들어. 이제 지쳤어.

수현 : 니가 뭐가 힘들어? 뭐가 그렇게 지치는데?

예린 : 하.. 그만하자.

수현 : (당황한 표정으로)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그만하자는 말은 하지마. 내 옆에 있어줘.

수현은 들고 있던 조각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기어오르면서 예린의 다리를 붙잡는다.

예린은 크게 놀라 비명을 지르며 넘어진다.

수현은 넘어진 예린의 허리를 더욱 강하게 안는다.

한계에 다다른 예린은 강하게 수현을 밀치고 때리며 저항한다. 그 때, 예린의 시선에 수현이 떨어뜨린 조각칼이 보였고, 그 조각칼을 쥘다. 수현을 찌르기 위해 손을 올리는 순간, 예린의 머릿속에 수현이 다쳤던 장면이 떠오른다.

예린은 해탈한 표정으로 팔을 떨어뜨리고, 조각칼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을 푼다. 그리고는 체념한 듯 눈물을 흘린다.